

##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8.7)

- 새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.
  -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,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'소비 이어달리기'를 지속하겠습니다.
-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각이 한몸이 되어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.
-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있지만, 우리 경제의 “진검승부”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.
  -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.
  - 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추어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
-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「성장전략 TF」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.
  - 「경제관계장관회의」도 “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”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.
  - 관계부처 장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 경제대혁신으로 “진짜 성장”을 구현하기 위해 밑알이 되겠습니다.

[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]

□ 그 첫번째 과제로

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.

□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.

○ 소매판매가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, 소비심리는 4년1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.

\* 소매판매(전월비, %): ('25.1)△0.6 (2)1.8 (3)△1.0 (4)△1.0 (5)△0.1 (6)0.5

\* 소비자심리지수(장기평균=100) : ('24.11)100.7 (12)88.2 ('25.1)91.2 (4)93.8 (5)101.8 (6)108.7 (7)110.8

□ 그러나 지방의 경우,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에 비해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

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

“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”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.

① 첫째,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관광·소비행사를 릴레이 개최해서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.

- 8월에는 숙박세일페스타, 9월에는 여행가는가을 캠페인과 동행축제, 10월에는 듀티프리페스타,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이 지방소비 활성화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
② 둘째, 비수도권 지자체 1곳당 최소 2곳 이상의 중앙부처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연결해서 지방의 관광교류, 특산품 구매 활성화 등 상생소비를 확산시키겠습니다.

③ 셋째, 각종 소비 인센티브를 지방에 차등해서 우대하겠습니다.

- 미술전시쿠폰 160만장, 공연예술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한도를 부여하여 내일부터 즉시 발급하겠습니다.

-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도 8.20일부터 80만장 발급하겠습니다.
- 지방관광·소비 시 추첨을 통해 “대박 경품” 이벤트 (1등 상금 2천만원)도 시행하겠습니다.

④ 넷째, 중국 국경절(10.1~8일), APEC 정상회의(10.31~11.1일)를 계기로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.

- “K-지역관광 토탈패키지”도 추진합니다.  
방문·이동, 숙박·음식, 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·통합해 지역관광 선도권역 두세 곳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.

#### [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]

- 이러한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,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.
-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해서 집중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- 특히, AI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.  
초중고, 대학은 물론 청년·군인, 일반국민,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민을 AI 전사화하겠습니다.
-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서 8월 중하순 확정·발표하겠습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